

■ 최신산업간호연구동향 ■ 본 연구는 2006년도 한국산업간호협회 연구지원 사업으로 수행되었음.

근로시간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차이 비교

이윤경 /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보건간호학 전공

본 연구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40시간 이하와 40시간 초과인 두 집단에서 직무스트레스의 차이와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는 2005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사전에 전화로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의사를 밝힌 전국 50개 사업장 보건관리자들에게 각 20부의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1,00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보냈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870부로 그 중 자료가 불충분한 120부를 제외한 총 750부를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서 40시간 이하와 40시간 초과에서 인구학적 특성은 연령과 결혼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건강관련 특성에서는 운동, 피로도, 수면 시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직무관련 특성에서는 근무경력, 직종, 노동강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업장 특성에서는 근로자수, 노조유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대상자의 근로시간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는 40시간 이하에서는 46.10점이었으며 40시간 초과에서는 47.18점으로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직무스트레스의 하위 영역별로는 40시간 초과에서 직무요구와 조직문화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40시간 이하에서는 직무자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3. 근로시간 및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성별, 연령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건강관련 특성에서는 흡연, 운동, 식생활, 피로도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직무관련 특성에서는 근무경력, 직종, 직급, 고용형태, 노동강도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사업장 특성에서는 지역, 업종, 근로자 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근로시간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40시간 이하인 집단에서는 성별이 여자인 경우, 식생활이 불규칙한 경우, 연령이 30대인 경우, 업종이 비제조업인 경우, 결혼상태가 미혼인

경우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8.1%이었다. 40시간 초과인 집단에서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이 40대 이상인 경우, 근로자수가 500~999명인 경우, 피로도가 높은 경우, 직급이 계장이상인 경우, 노동강도가 높은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0.3%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40시간 초과근무는 40시간 이하 근무보다 직무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 근로시간에 대한 적절한 편성과 초과 근로자에 대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40시간 이하와 40시간 초과인 두 집단에서 서로 다른 변수가 작용하므로, 초과 근로자에게 추후 근로시간에 따른 차별화된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